

지역 소식통

부안군, 출산 산후 조리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

부안군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산후 조리비 지원을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출생 신고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거주하는 산모이며 산후 조리원 이용 비용과 산후 운동·마사지, 영양제, 산후관리용품 등 산후조리 전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관련 영수증을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25년 출산 산모의 경우 제도 확대 시행에 맞춰 기존에 50만원을 지원받은 산모라면 잔여 금액 최대 80만원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과 지원 조건 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팀(☎ 063-580-3043, 3885)으로 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품목별 데이터

생산모델 보급 신청접수

정읍시가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영농 확산에 나섰다.

시는 품목별로 최적화된 데이터를 농가에 적용하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총 10개소이며, 국비와 시비 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 농업인과 주산지 중심 연구회, 공동선별회 등이다. 시는 재배 환경 및 생육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고, 습득한 정보를 공유해 지역 농업 기술 향상에 기여할 의지가 강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아직 기술 수준이 1세대 이하인 취약 농업인을 중점적으로 지원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063-539-62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고독사 고위험군 전수조사 실시... 총 119명 발굴·맞춤형서비스 연계 본격화

고창군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독사 고위험군 전수조사 결과, 모두 119명이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전수조사는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복지이장 등이 참여해 실제 거주 여부,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적 고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119명에 대해 선 개별 욕구와 위험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대상자로 분류했다. 또한 △AI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 △정기 안부확인 △우유·생활지원 꾸러미 지원 △건강·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연계 등 통합적 지원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 실태 파악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읍·면 지

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및 지역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고독사 예방 모델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위험군으로 조사된 대상자 한 분 한 분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과 민·관 협력을 통해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양돈 농가 악취 줄이기 '총력'

축산 악취 저감 시설 설치비 50% 지원... 20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정읍시가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시비 8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정읍시가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시비 8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를 재원으로 '2026년도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양돈농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인인증 기관의 현장 실증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시설들로

한정했다. 여기에는 액비(액체비료) 순환시스템(저장조 포함),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미생물배양기, AHR 디칼, 악취저감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시는 선정된 농가에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농장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에는 민원 걱정 없는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시설 지원 외에도 다각적인 환경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축산 냄새 중점 관리 농가 16곳을 선정해 악취저감제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더불어 축사 바닥의 수분 조절에 필요한 톱밥과 왕겨 구입비 30%를 지원하고, 매주 1회 '축산환경·소독의 날'을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은 악취 감소뿐만 아니라 가축의 사육 환경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 시장은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와 악취 저감은 축산업이 주민과 공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일부 언론 출장비 지급 규정 곡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고창군, 경미한 출장은 구두 보고 가능·규정에 명시... 횡령·배임 주장, 법적적 근거 없어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의 '출장비 부담 지급'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근거 없는 의혹이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출장비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됐다"며 "결과보고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곡해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횡령·배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보도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라며 "군은 앞으로도 규정에 따른 투명한 예산 집행에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민행복 활력고창 나눔대화' 대장정

심덕섭 군수, 고창읍 시작으로 14개 읍·면 순회 나눔대화 릴레이

심덕섭 고창군수가 13일 오후 고창읍을 시작으로 '군민행복 활력고창 나눔대화' 대장정에 나섰다.

심덕섭 군수는 13일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6 군민행복 활력고창 나눔대화'를 열었다.

심 군수는 이번 나눔대화를 통해 올해 슬로건인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의 의미를 설명하고, 4대 추진방향(서민경제 활성화, 미래첨단산업 육성, 세계유산의 특별한 활용,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군민과 함께 공유한다.

읍·면 방문인 만큼 역점사업들의 현안과제에 대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14개 읍·면 순회 나눔대화에선 군

정계획 보고, 활력 군민상 시상, 군정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남녀노소 주민 누구나 군정 발전방향과 정책제시, 행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고, 심 군수가 직접 답변에 나섰다.

실제 고창읍에선 △터미널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일정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올해 일정 설명 등이 상세하게 이뤄졌다. 심 군수는 정책 추진 절차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군민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약속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이 가진 문화·역사·예술·관광 등 매력 자산을 활용해 산업화하고,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모이는 활력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집수리 점검단, 노후주택 집수리·빈집 정비 추진... 23일까지 신청

부안군은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주택 집수리 및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창호, 담장 등의 개선을 지원하고 빈집을 대상으로는 철거비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집수리 61호, 빈집 철거 4호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집수리 2호, 빈집 철거 1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해 갈 예정이다며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부안군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에는 국토교통부의 집수리 사업 지원 가이드라인(2025년 6월 개정)에 따라 건축사 등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인 집수리 점검단을 구성해 사업의 공정성과 품질을



확보할 방침이다.

집수리 점검단은 집수리 신청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및 구조 안전성 점검, 집수리 필요성 및 시급성 판단, 견적서 및 공사 범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주민과 시공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와 공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공사 항목이 주택 상태에 적합하게 구성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점검단 운영을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